



문학과지성사 창립 30주년 맞아 문화원 '사이' 개원 강좌 중심의 문화원 아닌 다양한 문화 영역 교류의 장을 지향한다

“발화자와 수화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함으로써 언어적인 실천을 이룰 수 있는 광장의 공간, 문학과 인문학의 언어가 행동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의 현재화가 바로 문지문화원 '사이'입니다.”

지난 2월 1일 문지문화원 '사이' (공동대표 채호기, 이인성)의 개원식에서 채호기 씨가 밝히는 '사이'의 지향은 다분히 실천적이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그 활동의 결과물을 거두기 위해 설립한” 문화 공간인 만큼 문학, 예술, 인문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사실 출판사에서 문화원을 개원하는 사례가 처음인지라 사이의 행보는 여러 면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채호기 씨와 함께 사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소설가 이인성 씨는 “현재 문화는 전체적으로 해체 재구성되는 시기”라며 사이는 “새로운 문화들이 나타나며 뒤섞이는 가운데 서로 교류하고, 충돌하면서 더 큰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이가 단순히 강좌 중심의 문화원이 아닌 다양한 문화 영역 교류의 장이 되어 주길 바라는 기대는 지난 30년간 문지가 축적해온 출판사로서의 문화적 입지와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개원식의 축사를 맡은 문화예술위원회의 김병익 위원장은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우선 반갑다”면서도 “문화센터류의 사회교육을 하는 공간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사이'가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품질 중

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현역진들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이인성, 채호기 공동대표 외에도 권오룡, 김태환, 우찬제 씨 같은 문학평론가, 심보선 시인, 장재호 음악가, 김홍석 미술가처럼 각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이날 개원식에서는 연극인이자 시인인 이철성 씨가 연출한 <사이-굿> 공연도 함께 선보여 참석한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현재 사이가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카데미, 토요문화 기획, 세미나, 문화예술 프로젝트, 심포지엄 및 이벤트, 전시 등이다. 이중 사이에서 가장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는 “우리 문화 예술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의도로 마련된 아카데미. 이미 3월 12일 봄 학기 개강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사이 학교' '사이문화카페' '사이워크숍' '사이푸른강좌' 등을 통해 풍성한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주연 씨는 “지금 문화는 열린 공간으로 나가는 추세이다. 독자와 저자가 숨겨진 상태에서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쌍방, 전방위로 만나는 것이다. '사이'가 이런 교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